

# 수달마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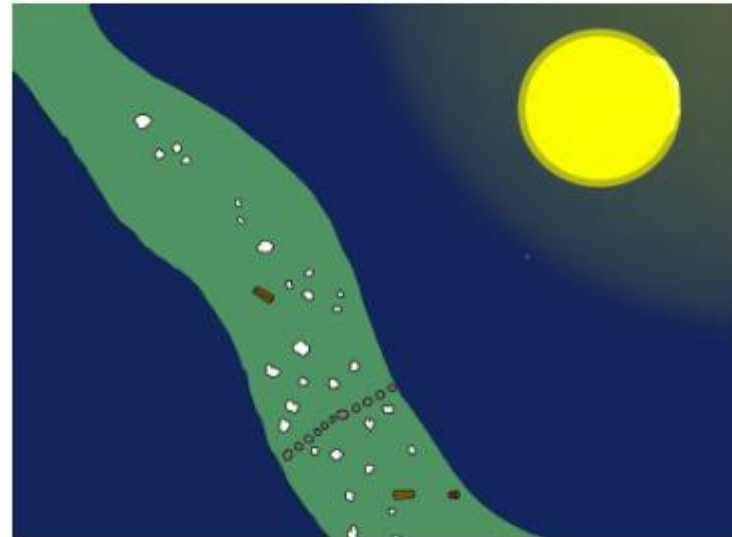
# SOS!



글 · 그림 전주부설초 33반 아이들



전주천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수달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23년 11월  
전주부설초 3학년 3반 아이들이 쓰고, 그린다.

눈부신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설초 3학년 학생들은 전주천에 현장학습을 왔습니다.

“와~전주천이다!!”

“수달도 볼 수 있을까?”



그때,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에 수달이 잠에서 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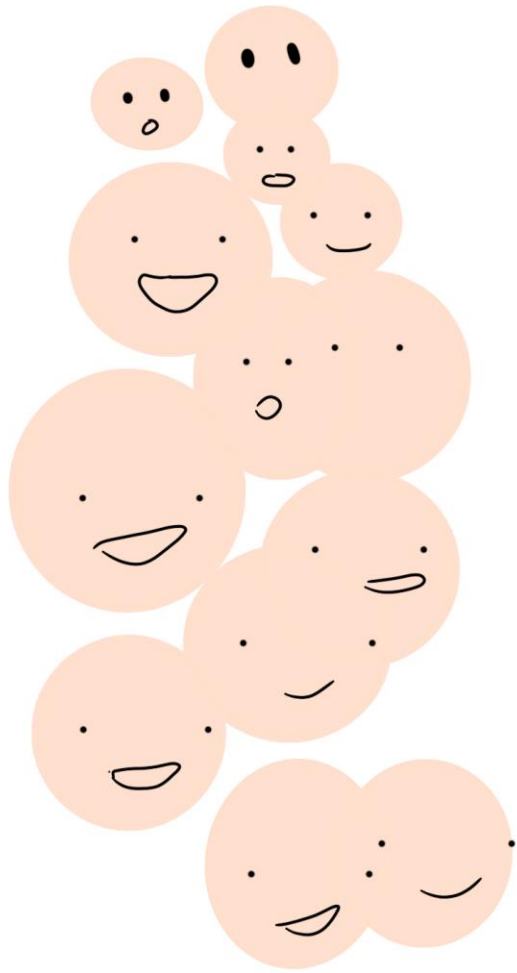
“ 야, 어 어제 그거 봤어? ”

“ 봤지! ”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전주천에 도착했어요.

“ 시끄러 ”

하지만 이제 막 잠을 자려던 수달은  
너무 시끄러워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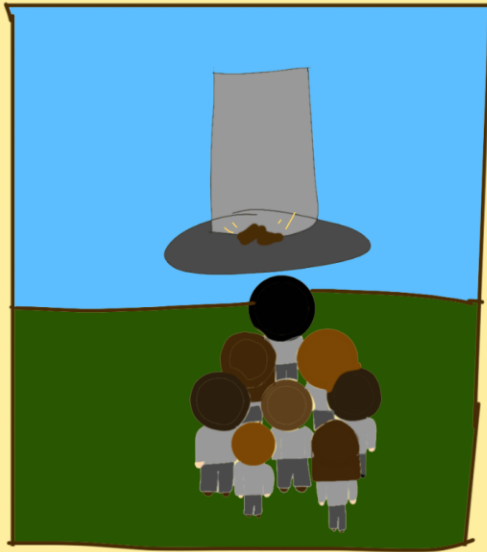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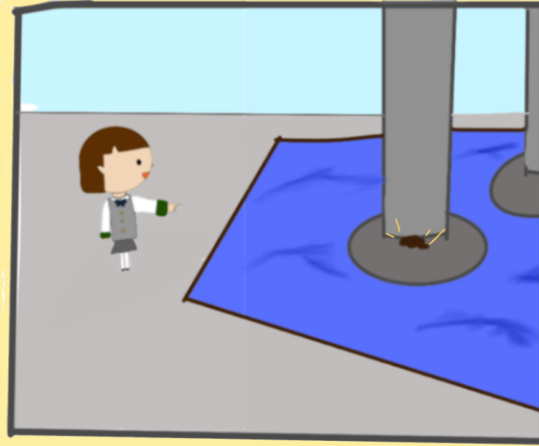
**오늘은 전주천에서 수달의 흔적을 찾아 볼 거예요.”**

**“싸전다리 밑은 수달이 좋아하는 화장실이에요.**

**우리 함께 수달의 흔적을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싸전다리 아래에서 수달의 흔적을 찾던 부설이는  
수달의 똥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와! 여기 수달 똥 있다!”

“그래?”

“어디?”

그 말에 아이들이 우르르 수달 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으…으!으!! 시끄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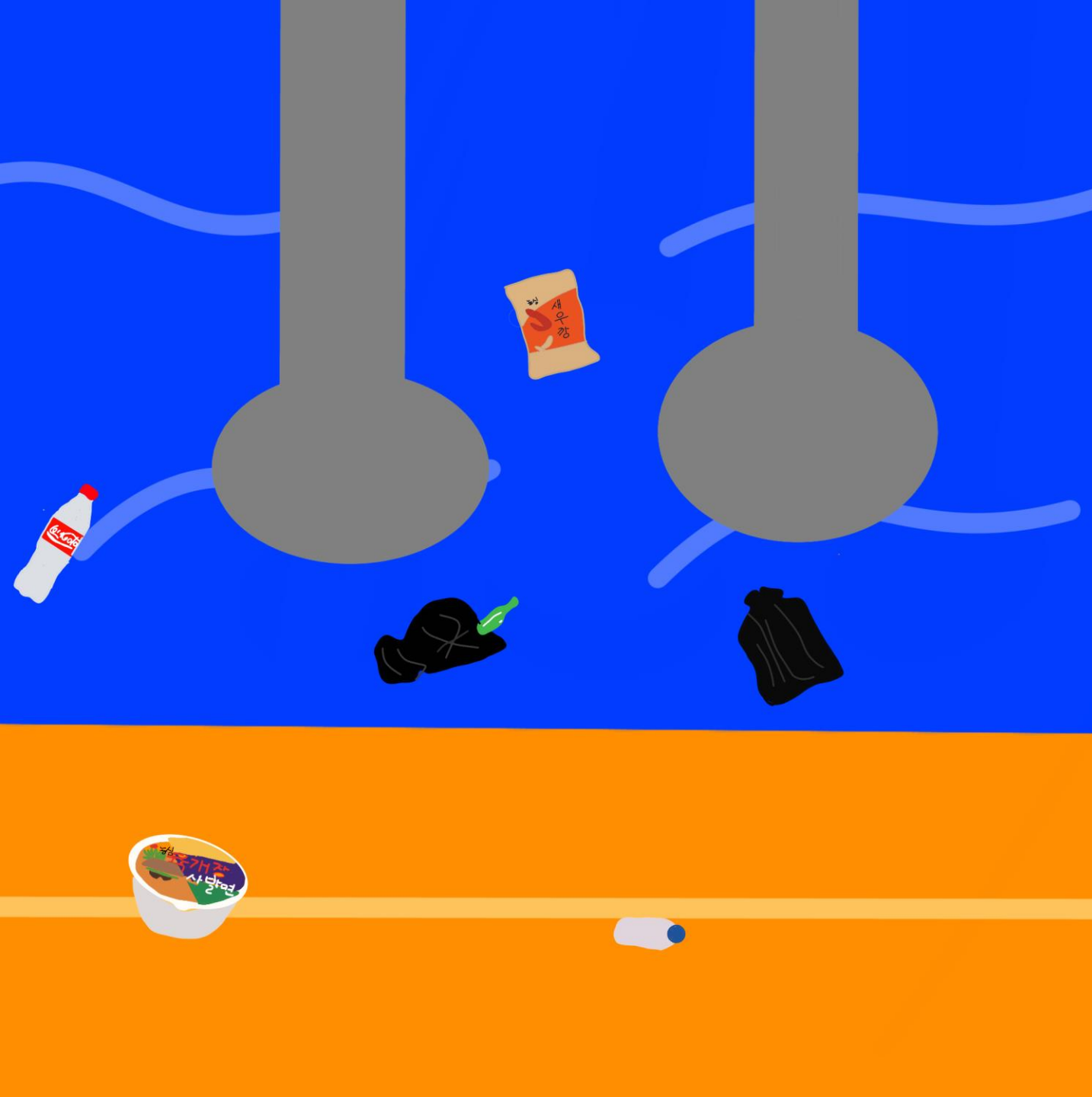
“내 똥이 왜 이리 인기야?”



“혹시 똥을 저~~기 싸놓으면 애들이 저~~기로 가서 조용해질까?”

“지금은 조용히 자고 싶은데…!!”





부설초 3학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싸전다리 밑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지저분해졌어요.



‘아...뭐지?’

잠을 자던 아기수달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어요.

“뭐야? 이 비닐 쓰레기는 어디에서 온 거지?”



물밖에 널부러진 쓰레기를 발견한 아기수달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큰일났어요!! ”

“무슨 일이니?”

“전주천 싸전다리 아래 쓰레기가 가득해요!”

“ 깨끗한 곳으로 이사가야 할 것 같아요!”

깜짝 놀란 아기 수달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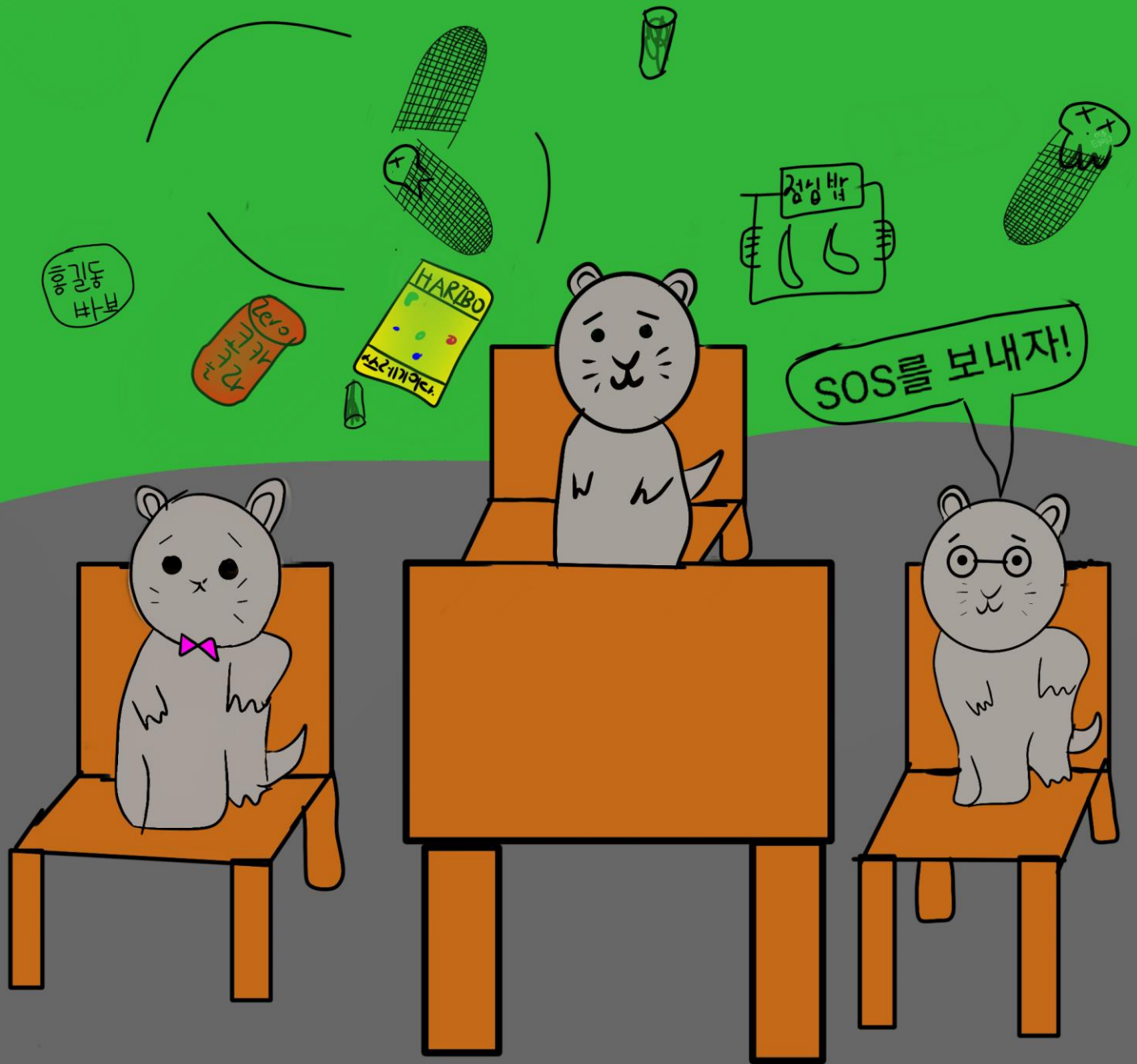
수달마을 회의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다가는 정말 이사를 가야할 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엄마, 아빠는 수달마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달마을 회의의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던 중 아빠 수달이 말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에게 SOS를 보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면

우리가 다시 떠나야 할 수 도 있다는 걸 알려야해요!”

“그런데 sos신호를 어떻게 보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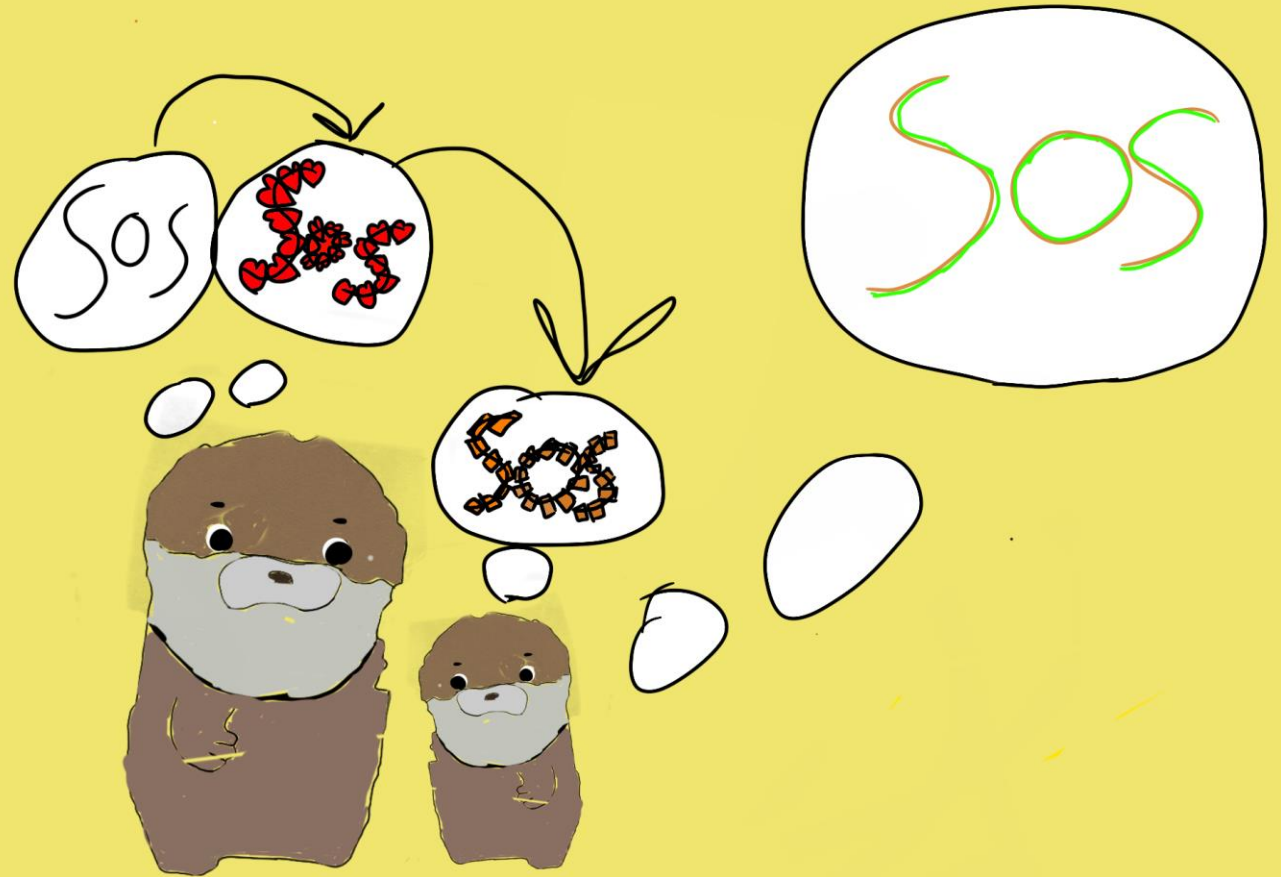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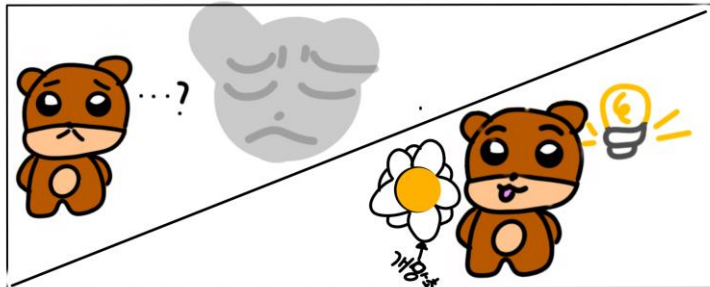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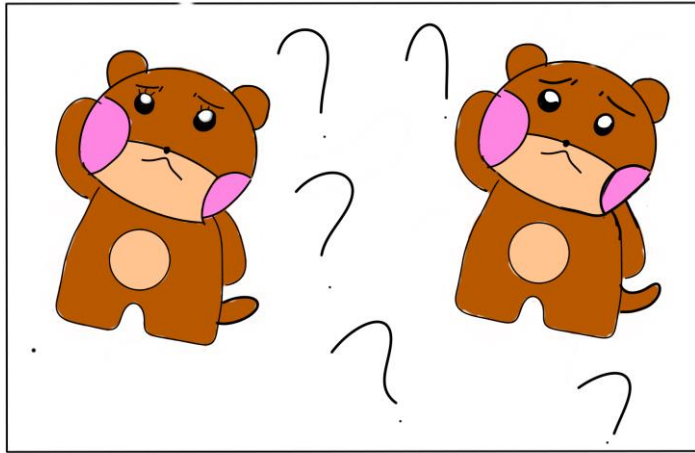
“무엇으로 신호를 만들까?”

“칩닝쿨, 수크령, 익새, 갈대 ...”

“ 개망초?”

난 개망초가 계란을 닮아 너무 예쁘던데

개망초로 하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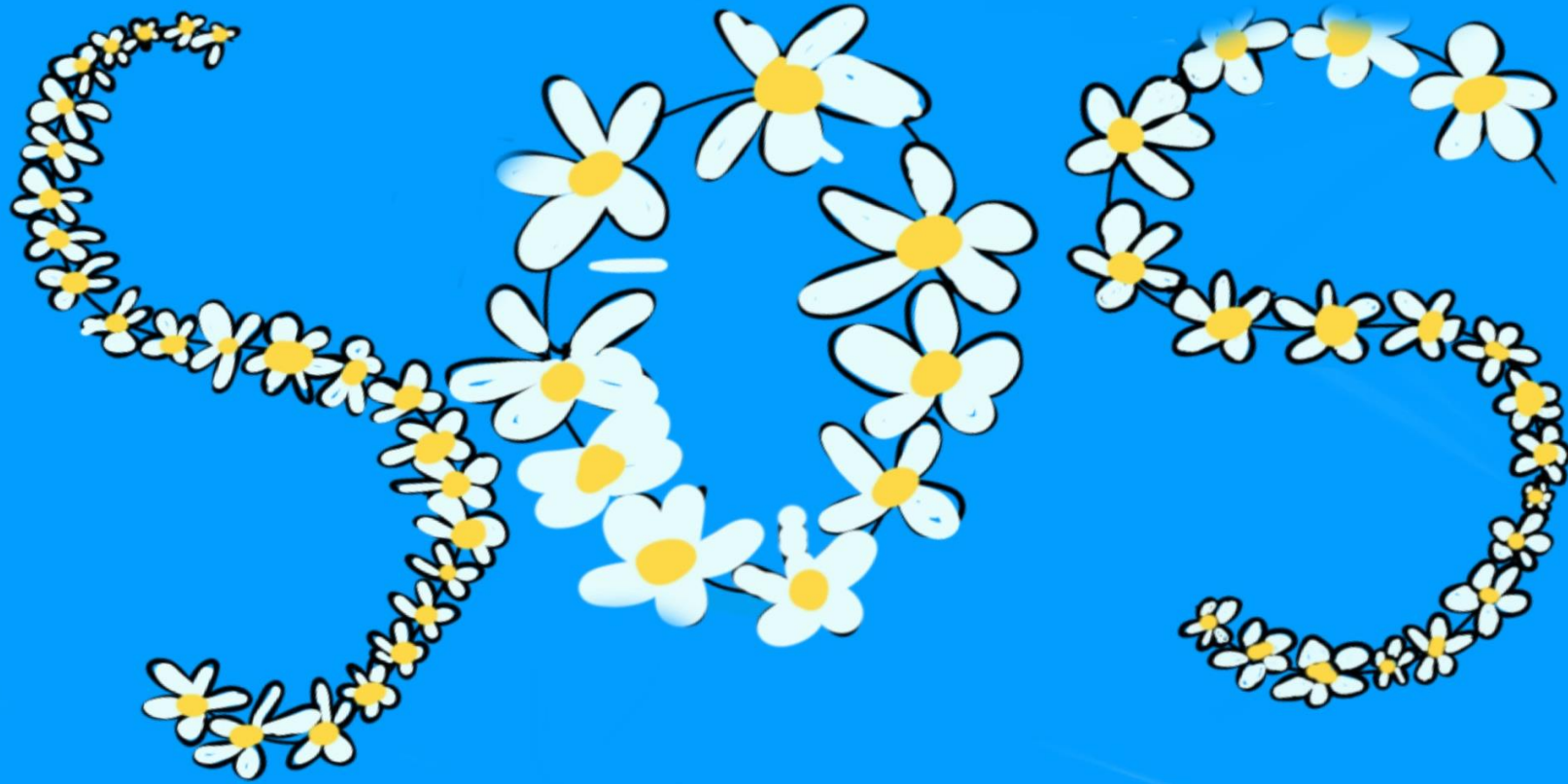
개망초로 sos신호를 보여주기로 하고  
수달가족은 개망초를 모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 학생들이 다시 현장학습을 왔어요.  
수달가족들은 SOS를 띄울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이들이 알아챌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달마을 수달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sos를 띄웠습니다.



그때, 설달이가 소리쳤어요.

“애들아! 저기 봐!”

“어? 저게 뭘까?”

“sos라고 쓰여있는 것 같은데?”

전주천 위에는 수달가족이 만든

개망초 sos가 가득 떠올라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저건 무슨표시야?”

“ 화살표인가? “ 화살표가 왜 있지?”

그때 부달이가 말했어요.

“화살표가 쓰레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니...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구조 신호가 아닐까?”

“ 아하!!” 아이들은 소리쳤어요.





-전주부설초등학교-

# 전주천 환경보호 캠페인

부설초 아이들은

전주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열어 전주천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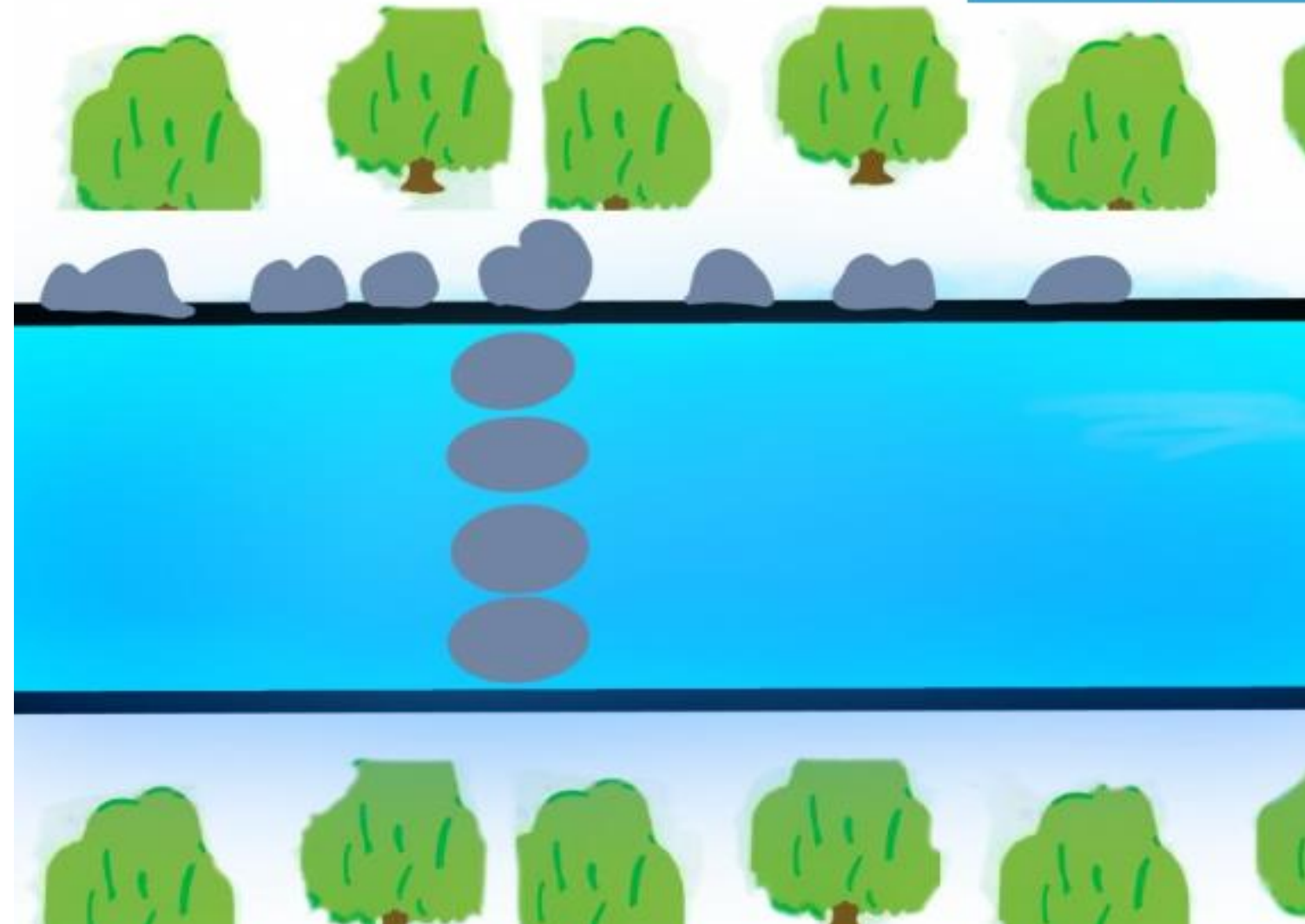


“깨끗한 전주천을 보니 마음이 너무 좋다!”

“엄마! 우리 이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달가족은 기쁜 표정으로 전주천을 바라보았어요.





수달가족은 깨끗한 전주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곽예찬 김려원 김민서 김연우 김하를 박지후  
백건우 백인규 성예지 송지용 양우빈 유성민  
이지안 임우성 임주환 장지온 전세연 전시현  
채라현 최노아 최지우 황인찬 강지을 김정화



11월 어느날,  
전주부설초 33반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뒹다.



"안녕 수줍"